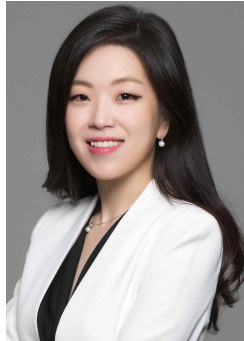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9 지방직 9급 국어(C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 정승,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문물 올인원,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실전300제, 박문각
이유진 화제의 모의고사 시리즈,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일출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 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 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 정답: ① [이론 문법 - 의미론 - 반의 관계]

☆ 정답 해설:

제시된 문장은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반의어임을, '일정한 방향성'을 통해 방향 반의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방향이 아닌 등급에서 대립을 보이는 '성공(成功) : 실패(失敗)'는 정도 반의어 중 평가 반의어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반의 관계(우월한 문법·규정 p. 332)

(1)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의 개념적 영역에서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단어 쌍이다. 중간항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예) 남자-여자, 참-거짓, 삶-죽음, 합격-불합격, 출석-결석

(2) 정도(程度)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정도 반의어는 다시 척도(尺度) 반의어, 평가(評價) 반의어, 정감(情感) 반의어로 나눌 수 있고 중간항이 존재하며 동시에 부정이 가능하다.

- ① 척도(尺度) 반의어: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넓다-좁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세다-여리다, 무겁다-가볍다
- ② 평가(評價) 반의어: 좋다-나쁘다, 쉽다-어렵다, 영리하다-우둔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 ③ 정감(情感) 반의어: 덩다-춥다, 달다-쓰다, 기쁘다-슬프다, 뜨겁다-차갑다

(3) 방향(方向) 반의어: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방향 반의어에는 공간적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적 대립이 있다.

- ① 공간적 대립: 위-아래, 오른쪽-왼쪽, 앞-뒤, 처음-끝, 남극-북극
- ② 인간관계 대립: 부모-자식, 남편-아내, 스승-제자
- ③ 이동적 대립: 사다-팔다, 올라가다-내려가다, 입다-벗다, 열다-닫다

☆ 오답 해설:

-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에서는 '상(賞)'을 주고받는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賣/買)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에서는 상대를 치고(攻) 막는(防)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하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 정답: ② [독해(화법) - 토론 - 사회자의 역할]

☆ 정답 해설: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이다.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함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토의vs토론(우월한 독해 p. 36)

토의: 두 사람 이상이 집단 사고를 거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논의로, 공동 이해 기반, 공정한 문제 해결, 소수의 지식과 의견 존중, 공동 집단 사고의 민주적 과정

토론:

-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
- 논제에 대립되는 쌍방,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논거로 제시, 상대방의 모순 지적
- 약속된 순서와 절차에 의해 진행, 필요할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판결

사회자의 역할	토의/토론자의 역할
·순차적 진행	·자신의 의견 발표
·통제(발화 순서 지정)	·상대의 의견에 반박
·요약	·예상되는 상대의 반박을 원천 봉쇄하거나 반박에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질문	
·참여	

☆ 오답 해설:

- ① 논제가 타당하지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자들에게 묻는 것 또한 사회자의 역할이라 볼 수 없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패널 토의', '포럼' 등으로 토의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토론은 토의처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안을 제시해 쟁점을 약화시키는 것도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는 것은 토론에서 사회자가 아닌 토론자의 역할이다. 토론에서의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요약하여 논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파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 ②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정답: ④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숲의 25% 이상’, ‘전체 농토의 2/3’, ‘1,497만 3,900ha’ 등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생산된 소고기는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나 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내용은 글이 말하는 사태의 심각성(멕시코의 숲, 우림 파괴)을 알리는 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② ‘점유’, ‘지방분’ 등 글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전문 용어의 뜻이 풀이된 부분이 없다.
 ③ 글에는 수치를 포함한 다양한 숲, 우림 파괴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 정답: ④ [음운론 - 음운 변동 - 사잇소리 현상]
★ 정답 해설:
 사잇소리 현상은 예외가 많은 수의적 현상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음운 조건임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잣말[혼잔말]- 인사말[인사말]’이 있다.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므로 사이시옷의 음운론적 조건(사잇소리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우월한 문법·규정 p. 41)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나, 나, 너, 노, 뉴’로 발음될 수 있다.
 예) 꽃+있 → [꼴닙], 눈+요기 → [눈노기]
 신+여성 → [신너성], 한-+여름 → [한너름]

- ㉡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예) 코+날 → 콧날[콘날], 수도+물 → 수돗물[수돈물]
- ㉢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ㅣ’나 ‘반모음 ㅍ(j)’으로 시작될 때에는 ‘ㄴ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예) 나무+있 → 나뭇잎[나문닙], 깨+있 → 깻잎[깻닙]
- ㉣과 ㉢의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한글 맞춤법 제30항 참고)

★ 오답 해설:
 ㉠ 노래말(X) → 노랫말: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 =가사.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덧난 소리에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 순대국(X) → 순댓국: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사이시옷은 본래 음운이 아니지만, 이 경우 사이시옷을 대표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하교길(X) → 하곶길: 하교하는 길. 「반대말」 등곶길(登校길) 한자어 하교(下校)+길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하:곶길/하:곶길]로 발음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경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 정답: ② [독해(문학) - 현대 문론의 이해 + 문학 이론]

★ 정답 해설:

(가)는 문학의 감상 관점 중,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라는 반영론(=모방론)을 제시하였다. (나)의 시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때 (가)의 관점에서는 사회나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외면한 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만을 표현한 (나)를 비판할 여지가 있다.

참고) 작품의 감상 관점(우월한 독해 p. 137)

내재적 접근 방법	구조론	작품을 독립된 세계로 보고 오직 작품의 내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인물, 표현, 작중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한다.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외재적 접근 방법	표현론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작가의 성장 환경, 학력, 교우 관계, 취미, 종교, 사상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반영론	문학 작품을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작품의 내용을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감상한다.
	효용론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독자가 얻는 교훈이나 감동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며 감상한다.

★ 오답 해설:

- ① 시의 율격과 형식,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이다.
- ③ 시적 분위기와 선정 후정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므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이다.
- ④ 시에 드러난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이다.

★ 작품 해설: 박목월, <나그네>

• 해제: 조지훈의 <완화삼>에 화답한 시이다. 박목월은 청록파 혹은 자연파로 불리는 시인으로서 그 유파의 이름에 걸맞게 <나그네>에도 시인 특유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우리는 1940년대의 상황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일군의 시인들이 등장하게 된 연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민지 현실 속에서 주권을 상실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주권을 잃고 나그네로 전락한 백성으로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한 방편이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파 시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들의 '자연'은 생산 현장으로서의 우리 농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시인의 관념 속에서 미화된 이상적인 자연이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이 시는 간결한 언어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려내고 있다. 두 번이나 반복된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인간은 자연에 비유되어 행운유수(行雲流水)하는 유유자적함을 보여준다.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고 나그네 신세가 되어 떠돌 수밖에 없는 이의 슬픔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관조적, 서정적, 낭만적, 풍류적, 향토적
- 제재: 나그네
- 주제: 체념과 달관의 경지
- 특징: 민요적 향토미 (7.5조, 4음보), 직유, 반복, 도치, 생략법
명사형 종결 : 이미지의 유동성을 막으면서 감동의 집중
- 구성
 - 1연: 향토적 배경
 - 2연: 체념과 달관의 경지
 - 3연: 외로운 여정
 - 4연: 향토적, 풍류적 정서
 - 5연: 체념과 달관의 경지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 ②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③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④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정답: ④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셋째 문단에 따르면, 독서는 글을 읽고, 집필한 필자를 읽고, 그것을 읽는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집필한 필자를 읽는 과정에서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은 후, 자신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 타인(필자)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책을 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벗처럼 책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책의 특징, 책을 대할 때의 태도를 벗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실제 벗에 대해 서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친밀한 교우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② 셋째 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책과 필자를 읽고 나서는 과정이다. 즉, 책과 필자의 시대를 토대로 독자가 있는 시대를 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대와 불화한 독자일수록 자신의 시대의 문맥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므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 ③ 첫째 문단에서 책을 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벗처럼 책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책의 특징, 책을 대할 때의 태도를 벗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실제 벗에 대해 서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셋째 문단으로 미루어보면, 진정한 독자는 삼독을 하는 독자로서, 책과 필자와 자신을 읽는 사람이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 정답: ②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옛’은 ‘지나간 때.’라는 의미의 관형사이다. 그러므로 수식하는 체언 ‘책’ 앞에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 오답 해설:

① ‘그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에’는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그중에’라고 써야 옳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41항(우월한 문법·규정 p. 172)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③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 쓰기도 붙여 쓰기도 한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쓰고, ‘한번’의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라면 합성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번이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는 어떤 때’에 낚시를 가자는 의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의미 특수화된 합성어 (우월한 문법·규정 p. 179)

구	합성어(의미 특수화)
한V번: 하나의 횟수	한번: 시험 삼아 시도함, 지난 어느 때나 기회

④ ‘굴속’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으로’는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굴속으로’라고 써야 옳다.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을닐[가을릴]
- ㉡ 입학생[이팍쌩]
- ㉢ 텃마당[툰마당]
- ㉣ 흙먼지[흥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 정답: ③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 변동]

★ 정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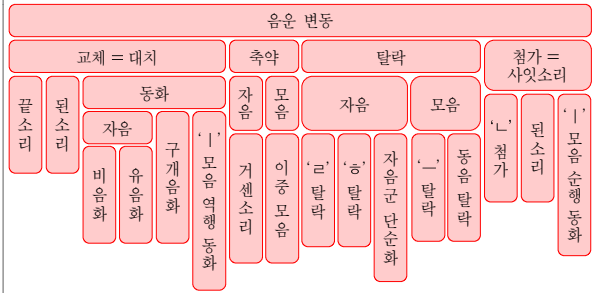
③ 입학생[이팍쌩](음운의 축약)

변동 전 음운 개수: ‘ㅣ, ㅂ, ㅎ, ㅏ, ㅓ, ㅕ, ㅛ, ㅜ, ㅝ’(8개)

변동 후 음운 개수: ‘ㅣ, ㅍ, ㅓ, ㅕ, ㅛ, ㅜ, ㅝ’(7개)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유기음화, 격음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뜻한다.

참고) 음운의 변동 현상(우월한 문법·규정 p. 38)



★ 오답 해설:

① 가을+닐 ⇨ [가을닐] (‘ㄹ’첨가) ⇨ [가을릴] (유음화)

‘ㄹ’첨가와 유음화 2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될 수 있다.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위치한 유음 ‘ㄹ’의 영향으로 발음이 ‘ㄹ’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

② 텃마당[툰마당](음절의 끝소리 규칙) ⇨ [툰마당](비음화)

비음화: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ㄱ, ㄷ, ㅂ)이나 유음(ㄹ)이 비음(ㄴ, ㅁ)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비음화의 결과 조음의 위치의 변화는 없고 조음 방법만 바뀌어서 발음된다.

④ 흙먼지 ⇨ [흑먼지] (자음군 단순화) ⇨ [흥먼지]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 ②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③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정답: ④ [이른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 정답 해설: 우월한 문법·규정 p. 303-304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다'는 사건은 문맥상 완료된 상황이 맞으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참고로, '우선하다'는 '앞서 다루어지거나 특별히 여겨지다.'라는 의미이다.
 ★ 오답 해설:
 ① 서술어 '열람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관계자가 관련 도서를 열람한다'와 같이 써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서는 '관련 도서'가 '비치하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도서는 ~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②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에서 서술어인 '제외된'과 목적어인 '수역'의 호응관계가 어색하므로 능동의 형태인 '제외한'으로 바꾼다.
 ③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므로 '안 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 10.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앞표이 잇느니
 녀던 길 앞표이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나) 술은 어이하야 도흐니 누룩 셋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호리라
 (다) 우레갯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갯치 번뜻 만나
 비갯치 오락가락 구름갯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보름갯튼 혼숨이 안기 피듯 호여라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웃음이 정 우움가
 하 여혀 업서서 늣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닐 웃디들 말구려 아귀 찍어디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 정답: ②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나)에는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다, 국이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간을 알맞게 한 탓이다.'의 부분에 문답법이 활용되었지만, 대조법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도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나도 고인 못 뵈었으니~고인을 못 뵈었어도', '녀던 길 앞에 있으니~녀던 길 앞에 잇거든'으로 연쇄법이 사용되었고, '아니 녀고 엇덜고'에서 고인이 가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③ (다)는 '우레갯치', '번개갯치', '비갯치', '구름갯치'로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④ (라)에서는 웃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에게 웃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현대어 풀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었으니
 고인을 못 뵈었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이황, 도산십이곡 中-
(우월한 독해 p. 197 적중)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윤선도, 초연곡 中-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혼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작자미상-
 하하 허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늣기다가 그리 웃네.
 사람들이 웃지들 말구려 아귀가 찍어질지 모르네
 -권섭, 하하 허허 한들-
(우월한 독해 p. 178 적중)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가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 정답: ③ [어휘 - 문맥적 의미]
 ★ 정답 해설:
참고 이유진 화제의 모의고사 시즌2 '살다'
 '풀기가 살아 있다'의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의 뜻으로, '풀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을 뜻한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의 의미가 아니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으로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를 들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의 '살다'는 '경기가 놀이인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가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의 의미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②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에서 목적어로 쓰인 '벼슬'이 직분을 나타내어 '벼슬을 살다'의 '살다'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④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는 '움직이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세요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게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 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 정답: ①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 정답 해설:

진행자는 상대방의 의견에 더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해설:

② 홍 교수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제시하며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자, 진행자는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홍 교수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자, 진행자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어보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④ 홍 교수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소개하자, 진행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며 상대방에게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 ②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③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④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 정답: ① [독해(비문학) - 주제]

★ 정답 해설:

글은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 등의 사람들이 진화와 진보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진보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 입장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은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②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뒷부분에, 다윈의 견해가 진화의 원천과 진보의 원천을 혼동함으로써 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된 소재를 진보와 진화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③ 글은 진화와 진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진화의 원천이 '생물학적인 유전'이라고 서술되고 있으나, 인간 유전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④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이 진보한다고 본 데 비해, 헤겔은 자연이 진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으나 그 증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른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답,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붕우(朋友) 서로 책(責)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았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 정답: ③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사씨는 오륜 중에 부부의 도가 있기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하고, 신하가 나라에 간하듯 부부끼리도 간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해설:

- ① 사씨의 말을 통해 사씨의 어머니가 사씨에게 남편을 공경하라고 당부했다는 부분이 나와있지만, 남편에게 맞선 사씨를 비판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사씨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라고 표현한 부분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유 소사는 사씨의 지혜롭고 덕망 높은 모습에 흠족한 것이지 사씨의 효성에 흠족한 것이 아니다.

★ 작품 해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우월한 독해 p. 207 적용)

- 갈래: 고전소설, 가정소설, 풍간(諷諫)소설, 목적소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권선징악
- 특징: 대화를 통한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까다로운 한문 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구성: 평면적 구성-시간의 순서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 발단 - 명나라 유현의 아들 연수는 한림학사가 되고 사씨와 결혼함.
- 전개 - 사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교 씨를 첩으로 들임.
- 위기 - 교 씨는 한림에게 사 씨에 대한 온갖 참소를 함.
- 절정 - 교 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 사 씨를 모함하고 정실이 된 후, 한림을 참소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름
- 결말 - 교 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감.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종종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채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별정계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도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닭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팡 당 팡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 정답: ④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소설에서 '단선적 구성'은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하나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복선적 구성은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각각 독자적인 구성에 의해 질서와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소리의 여운'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소설의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소리의 여운'은 갈등 해소의 기미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늙은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짙 당 짙 당'은 단조로운 소리인 동시에 송곳처럼 쭈시는 구석이 있어 등장인물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단조로운 소리'의 반복을 통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모종의 의미가 부여됨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 해제: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한 가족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상처를 다룬 작품이다. 특별한 사건 없이 북에 두고 온 만말을 기다리는 한 가족의 상황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있다. 뚜렷한 사건의 전개는 보이지 않으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역시 단절된 상황을 보여 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는 가족의 정신적 상처를 상징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달아지는 살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기다림의 지속으로 인해 마모되어 가는 가족의 유대감을 상징하고 있다.
- 주제: 전쟁이 가져다준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상처
- 구성
- 발단: 만말을 기다리는 가족
- 전개: 쇠붙이 소리와 영희, 성식 등 가족의 단절된 삶
- 절정: 열두 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식모를 언니라고 외치는 영희
- 결말: 계속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③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④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 정답: ③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다음 글에서 글쓴이는 <일 포스티노>의 인물인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며,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장면은 은유의 절정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글쓴이가 영화의 장면을 통해 '은유'를 설명한 것일 뿐, 영화 속의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다음 글은 '나'가 '시'의 본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일 포스티노>가 시의 본질인 은유적 측면을 영화에서 잘 담아낸다는 것을 통해 문학의 전반적인 미적 자질과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다음 글에서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음 글에서 '나'가 시를 가르칠 때 문학 교과서보다는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문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絶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 정답: ③ [어휘 - 한자 성어]

★ 정답 해설: 우월한 어휘·한자 p. 258, 286, 293
 지문의 문맥상,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일필휘지)'라는 대목을 보면 一筆揮之(일필휘지)는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씀'이란 뜻으로 방랑시인 김삿갓의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글씨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天衣無縫(천의무봉)의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입각한 그대로의 해석을 빈칸에 넣는 것이 뒤의 대목과 정확히 부합하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天衣無縫(천의무봉)이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天衣無縫(천의무봉):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
 天 하늘 천, 衣 옷 의, 無 없을 무, 縫 꿰맬 봉

★ 오답 해설:

- ① 花朝月夕(화조월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朝花月夕(조화월석)
花 꽃 화, 朝 아침 조, 月 달 월, 夕 저녁 석
- ② 韋編三絶(위편삼절):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 手不釋卷(수불석권), 螢雪之功(형설지공)
韋 가죽 위, 編 엮을 편, 三 석 삼, 絶 끊을 절
- ④ 莫無奈何(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莫可奈何(막가내하), 無可奈何(무가내하)
莫 없을 막, 無 없을 무, 可 가능할 가, 奈 어찌 내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중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 정답: ① [어휘 - 한자 성어]

★ 정답 해설:

유명세(有名稅)의 세(稅)는 ‘세금’을 뜻하는 ‘세’로서, 기존에 혼동하는 ‘유명세를 타다.’의 쓰임은 ‘세를 선지에서와 같이 일종의 ‘세력’(勢力)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유명해지면 치러야 할 일종의 ‘세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유명세(有名稅)를 치렀다.’로 쓰는 것이 맞다.

★ 오답 해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복불복이란,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의 운수에 따라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뜻으로서 쓰임이 적절하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중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대중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치지를 하는 치료법을 이르는 말이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만을 대응하여 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경위’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참고) 우월한 어휘·한자 p. 17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증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 ②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③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④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정답: ①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다음 글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증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효율성만을 중시해온 ‘유목민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② 둘째 문단에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오늘날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을 통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효율성을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 즉 ‘유목민적 태도’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통해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 정답: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넷째 문단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효(孝)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 충(忠)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적 윤리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효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유습이라고 오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넷째 문단에서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 ② 셋째 문단에서 유교에서는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는 효(孝)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효는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인 충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한다. 또한 종족 윤리의 기본인 연장자에 대한 예우가 신분 사회의 상하관계로 연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충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은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